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512명의 남, 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충동성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울증이 자살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충동성이 상호작용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우울증이 자살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충동성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자살생각과 충동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긴 하였으나, 충동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도 자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기 특유의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충동성의 결과로 가볍게 인식해왔던 것보다는 좀 더 그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심리적 갈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서적 지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자살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자살 생각과 충동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동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도 자살 예방에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충동성 척도의 구성 타당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Camus(1955)가 인간이 해결해야할 오직 단 하나의 철학적 문제는 자살이라고 하였듯이, 자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복잡한 행위이며, “왜 개인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끝마치려하는가”에 대한 어느 한가지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자살을 이끄는 원인을 이해하고자 사회-문화적 측면, 정신분석적 측면, 그리고 성격이나 심리 장애 등 정신건강 측면을 강조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자살을 이끄는 개인내적인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Baumeister(1990)가 최근에 발표한 자살 이론에 따르면, 자살은 개

인이 이루고자하는 기대나 희망(준거)과 현실간의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우울증이 초래되고, 이 우울증이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 상태를 유발하여 결국 자살행위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즉, 인지적 몰락 상태란 모든 사상에 대하여 의미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사물과 현상을 피상적, 몰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지적 몰락 상태는 자살을 저지하는 내적 장애를 제거하는 기제가 되어,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신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으로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 입시목표와 현실간의 괴리가 우울증을 유발하고 그것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Baumeister의 자살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살 생각과 자살 행위가 우울증의 진단 준거에 포함된 사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우울증은 자살 행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된 심리 장애이다(Fremouw, 1990). 누구나 절망이나 슬픔, 무력감을 느낄 때 일시적으로 죽고싶은 생각이 드는 걸 한번쯤은 경험해봤으리라 생각되며, 일시적인 증상으로서의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약 30%가 자살을 했다는 Klerman(1987)의 조사 연구 결과는 단일 요인으로는 우울증이 자살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risk factor)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울증의 여러 증상들 중에서 우울감이나 슬픔같은 정서적인 증상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인 절망(hopelessness)이 자살과 가장 관련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Beck, 1967; White, 1989; Brent et al., 1986), 이러한 Beck의 인지적 이론은 성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성있게 지지되었다(Cole, 1988; Emery, Steer, & Beck, 1981; Minkoff, Bergman, & Beck, 1973; Petrie & Chamberlain, 1983; Weissman, Beck, & Kovacs, 1979; Wetzel, Margulies, Davis, & Karum, 1980). 그러나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증의 인지적 요인인 절망보다는 정서적 요인이 더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le, 1989; Asarnow, Carlson, & Guthrie, 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그리고 김중술(199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요인이 자살 생각과 더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우울-절망-자살간의 관계에서 청

소년들과 성인들간에 발달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우울감이나 충동성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의 영향에 관해 좀 더 자세히 탐색해 볼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유되며, “청소년들은 록 음악을 듣고도 자살 시도를 한다”는 말은 청소년기에 흔히 보일 수 있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충동성을 매우 단적으로 표현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충동성과 자살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는 듯하나, 청소년들이 보인 자살 시도의 대다수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Brent, 1987; Hawton et al., 1982)는 이러한 자살 시도가 충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impulsive problem-solving style)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치명적인 자살율은 성인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자살 시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는 통계치(Fremouw, 1990)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단 하나 남겨진 선택으로 계획된 자살 시도를 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급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위기 모델(crisis model)은 청소년 자살을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위기 반응으로 보는 입장으로(Sarason & Sarason, 1984) 비교적 잘 기능하던 정상 청소년들도 갑작스런 실패나 좌절, 상실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자살 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자살 행동에서 충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 위기 모델은 대부분의 청소년 자살 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오랫동안 지속된 개인적, 혹은 가족내의 갈등이나 심리적인 고통 결과 자살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장기적인 스트레스 모델(long-term stress model: Jacobs, 1971)이 청소년들이 보이는 자살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Peck, 1985). 자살 생각

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청소년들 가운데 약 40%가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였다는 연구 결과들(Carlson & Cantwell, 1982; Robbins & Alessi, 1985)은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 행위를 보인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살 행위를 보이기까지의 개인 내적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살 행위와 우울증, 충동성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울증이 자살 생각을 유발하리라는 것은 선행 연구 결과 및 임상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쉽게 예측될 수 있지만, 자살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충동성이 자살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상호작용 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취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첫 단계라 생각된다.

충동성(impulsivity)이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덜 숙고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Dickman, 1990). 이제까지 충동성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는데, 인지 기능과 충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충동성의 결과가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의사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오히려 충동적인 사람이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Dickman & Meyer, 1988). Dickman(1990)은 덜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적응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수행하는 성향을 “기능적 충동성(functional impulsivity)”으로, 빠르고 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부적응적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수행하는 성향을 “역기능적 충동성(dysfunctional impulsivity)”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Dickman은 기능적, 그리고 역기능적 충동성 모두 “행동하기 전에 덜 숙고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만 기능적 충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런 성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역기능적 충

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런 성향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기능적 충동성은 오히려 민첩성이나 정신적 기민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리적 장애나 적응상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역기능적 충동성이라 생각되는 바, 만일 충동성이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도 역기능적 충동성이 이러한 과정에서 방아쇠 역할을 하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 우울증이 자살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역기능적 충동성이 상호 작용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서울의 남, 녀 2개 고등학교 학생 512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중 1학년이 155명, 2학년이 171명, 3학년이 186명이었고, 남학생이 227명, 여학생이 285명이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배경 자료 및 우울증, 자살 생각, 그리고 충동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이 사용되었다.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ovacs, 1981)와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1967), 그리고 Beck Hopelessness Scale(BHOP; Beck & Weissman, 1974)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과 Reason for Living Inventory(RFL; Linehan, Goodstein, Nielson, and Chiles, 1983)가 사용되었다.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

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능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이를 변형시켜서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질문지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RFL은 모두 4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항목들이 6가지 하위 척도-생존과 적용에 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책임, 자식과 관련된 걱정, 자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반대-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RFL의 저자들의 연구에서 6개의 하위 척도중 “생존과 적용에 관한 믿음”이 SSI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RFL의 “생존과 적용에 관한 믿음” 척도와 SSI를 함께 사용하여 자살 생각을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는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 α 는 .75에서 .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충동성은 Dickman(1990)이 제작한 충동성 척도를 저자들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가지 하위척도-기능적 충동성과 역기능적 충동성-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적 충동성 척도(Functional Impulsivity Scale : FIS)는 11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에게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 α =.46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Dysfunctional Impulsivity Scale : DIS)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신뢰도 계수 α =.73이었다. 기능적 충동성

척도와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간의 상관계수는 .10으로 이는 두 척도가 측정하는 성향이 서로 독립적임을 시사하며, Dickman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부록 참고).

절 차

질문지들은 해당 고등학교의 상담교사가 수업시간중에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는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는데 약 한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결 과

모든 척도들의 평균치는 표 1과 같으며, 각 척도들간의 상관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1. 남, 여별 SSI, RFL, BHOP, BDI, CDI, FI, DI점수의 평균치

	남		여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SSI	10.60 (6.25)	12.85 (6.34)		
RFL	5.86 (4.38)	6.53 (5.57)		
BHOP	5.62 (4.70)	5.07 (4.23)		
BDI	14.61 (7.81)	16.32 (9.14)		
CDI	13.44 (7.22)	15.22 (7.72)		
FI	4.18 (2.09)	3.85 (2.09)		
DI	7.08 (3.00)	6.84 (3.00)		

표2. 각 척도들간의 상관행렬표(N=479)

	SSI	RFL	BHOP	BDI	CDI	FI	DI
SSI	1.000	.582	.378	.560	.532	.008	.187
RFL		1.000	.620	.581	.556	.001	.156
BHOP			1.000	.466	.440	.014	.201
BDI				1.000	.796	-.128	.218
CDI					1.000	-.133	.237
FI						1.000	.108
DI							1.000

우울증에는 슬픔, 우울감, 절망, 사고 및 행동의 지연,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그리고 행동적 증상들이 포함되므로, 우울 척도나 절망 척도와 같은 어느 한 가지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에 물론 우울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핵심적인 증상을 이루는 인지적, 정서적 증상의 심각성을 가능한 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Beck의 성인용 우울 척도(BDI)와 아동용 우울 척도(CDI) 및 절망 척도(BHOP)를 실시한 후 3가지 척도 점수들을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합한 복합 점수(composite score)를 우울증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자살 생각(SI: suicidal ideation)도 Beck의 자살 생각 척도(SSI) 점수와 RFL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합한 복합 점수로 측정하였다. 복합 점수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CDI와 BDI는 “우울”을, SSI과 RFL은 “자살 생각”이라는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상관이 높은 검사들이므로 측정치들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합 점수를 사용하였다. 우울증, 충동성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우울증 점수(DEP), 기능적 충동성 점수(FI), 그리고 역기능적 충동성 점수(DI)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자살 생각 점수(SI)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살 생각에 대한 우울증과 충동성의 직접 효과 및 상호 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8개 조(set)의 독립 변인들을 종속 변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결과는 자살 생각에 대한 기능적 충동성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 $F(1, 475) = 5.521, P < .05$, 역기능적 충동성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방정식 (1)에서 기능적 충동성이 가지는 β 값은 .07577이었다. 우울증과 충동성이 상호 작용하여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우울증이 자살 생각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475) = 476.290, p < .001$. 남, 녀 집단을 구분하여

표3. 중다상관자승과 그 아이들에 대한 유의도 검증

독립 변인	R ²	R ² 증가분	F'
(1) DEP FI DI	.51989	.48243 ^a	476.290**
(2) DEP DI	.51431	.00558 ^b	5.521*
(3) DEP FI	.51988		
(4) FI DI	.03746		
(5) DEP FI DI DEP*FI DEP*DI	.52470	.00481 ^c	2.375
(6) DEP FI DI	.51989		
(7) DEP DI DEP*DI	.51565	.00134 ^d	1.311
(8) DEP FI DEP*FI	.52339	.00341 ^e	3.394

모든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인은 자살 생각(SI: suicidal ideation)임

a: (1)과 (4)의 차이

b: (1)과 (2)의 차이

c: (5)와 (6)의 차이

d: (7)과 (2)의 차이

e: (8)과 (3)의 차이

f: F는 증가분에 대한 유의도 계수임

* p < .05

** p < .001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자살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충동성이 상호 작용 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연구자들이 만든 “실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두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피험자들을 자살 시도 집단(SA group, N=59)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피험자들을 비자살 시도 집단(NSA group, N=443)으로 분류하였다. SA 집단과 NSA 집단은 범주 변인이므로 이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자살 생각(SI)과 기능적 충동성(FI), 역기능적 충동성(DI)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로짓 분석(logit analysis)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는 자살 시도에 대한 자살 생각과 역기능적, 기능적 충동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내주며 $F(1, 499)=198.64$, $F(1, 499)=39.44$, $p<.001$, 이는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충동성이 상호작용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살 생각과 충동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을 자살 생각 점수와 기능적 충동성, 그리고 역기능적 충동성 점수의 중앙치

(median)에 입각해서 4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자살 시도 비율을 비교한 결과(표 5, 표 6), 역기능적 충동성과 기능적 충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이 자살 생각을 적게 할 때보다는 자살 생각을 많이 할 때 자살 시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살 생각과 역기능적 충동성 高-低 집단의 자살 시도 비율

		(자 살 생 각)	
		저 고	
(역기능적 충동성)	고	0.0215	0.1223
	저	0.0392	0.1186

표 6. 자살 생각과 기능적 충동성 高-低 집단의 자살 시도 비율

		(자 살 생 각)	
		저 고	
(기능적 충동성)	고	0.0362	0.1367
	저	0.0278	0.1017

표 4. 중다상관자승과 그 차이들에 대한 유의도 검증

독립 변인	R ²	R ² 증가분	F ^d
(1) SI DI FI SI*DI SI*FI	.99425	.00298 ^a	125.33**
(2) SI DI FI	.99135		
(3) SI DI SI*DI	.92738	.00289 ^b	198.64**
(4) SI DI	.92449		
(5) SI FI SI*FI	.99165	.00066 ^c	39.44**
(6) SI FI	.99099		
(7) SI	.92446		

모든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인은 자살 시도 여부임(SA, NSA)

a: (1)과 (2)의 차이

b: (3)과 (4)의 차이

c: (5)와 (6)의 차이

d: F는 증가분에 대한 유의도 계수임

** p<.0001

물론 자살 생각이 자살 시도의 전체변량의 92%를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F(1, 501) = 6131.05, p < .001$ (방직식 7의 R^2),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살 생각임을 알 수 있으나, 자살 생각과 충동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충동성이 자살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 시도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과 충동성이 상호작용하여 자살 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자살생각과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자살 생각이 이후에 보일 자살 행동의 가장 중요한 예언 지표가 될 수 있으며(Becket al., 1979; Simons & Murphy, 1985) 자살생각이 궁극적인 자살 행위의 가장 좋은 예측치(predictor)라는 Fremouw(1990)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역기능적 충동성보다는 오히려 기능적 충동성이 자살 생각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능적 충동성이 다른 부적응 척도들(BDI, CDI, BPOH, SSL, RFL)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능적 충동성과 자살 생각간의 정적 관계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추론은 충동적인 청소년들은 그것이 시간 제한이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적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할 지라도 대체로 생각을 빨리하고 결정을 쉽게 내리는 성향이 있으므로 심하게 우울해지지 않고도 자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산출된 기능적 충동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 .46$ 으로 문항들간의 내적 일관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므로 이러한 추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능적 충

동성 척도가 측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기능적 충동성 척도의 구성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역기능적 충동성이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역기능적 충동성 점수가 우울증 점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었으므로(표 2) 역기능적 충동성의 효과가 우울증 효과에 흡수되어 역기능적 충동성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역기능적 충동성 점수가 우울, 절망, 자살 생각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인 것은 역기능적 충동성이 심리적인 장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위의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역기능적 충동성이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역기능적 충동성과 자살 생각의 상호 작용 효과가 기능적 충동성과 자살 생각의 상호작용 효과보다 훨씬 큰 편이었으므로 기능적 충동성보다는 역기능적 충동성이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충동성이 자살 생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자살 생각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시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살시도로 이르는 인과과정에 대해 Baumeister가 상정한 모델과도 일치한다. 즉,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내적으로 기인되어 초래된 부정적 감정(우울증)이 인지적 몰락 상태를 이끌어서 결국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인지적 몰락상태에서는 마치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하게 장기적인 계획 능력의 결여를 보이며(Bhagat, 1976; Cantor, 1976), 억제능력의 손상이 수반된다(Baumeister, 1990)고 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 따르면 자살로 이르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인지적 몰락이 자살 시도를 이끄는 과정에서 충동성이 개입하게 되는 바, 이는 충동성이 자살 생각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시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살 생각과 충동성이 상호작용하여 자살 시도

를 이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동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자살 예방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충동성의 직접 효과 및 자살 생각과 충동성의 상호작용이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정도는 약 7%에 불과하며(표 4에서 방정식 1과 7의 R^2 의 차이), 충동성보다는 주로 우울증이 자살 생각을 유발하고, 충동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도 자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라 할 지라도 쉽게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지는 않으며 자살 행위는 오랜 개인적인 갈등과 심리적 고통의 결과임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장기적인 스트레스 모델(Jacobs, 1971)을 지지하는 바, 청소년들도 대체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를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오랜 번민과 심리적인 갈등을 거쳐 고통과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어렵게 자살 시도를 하게되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기 특유의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충동성의 결과로 가볍게 인식해왔던 것보다는 좀더 그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심리적 갈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느끼는 좌절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이나 친구, 교사들의 정서적인 지지 및 주변 상황의 호전을 통해 우울감과 절망을 감소시키는 것이 청소년 자살 예방에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문제점은 앞서 논의했듯이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Dickman(1990)의 충동성 척도의 구성 타당도 문제이다. 이 검사문항들(특히, 기능적 충동성 문항)은 대부분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기민성과 관련된 듯하며 심리장애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서적인 충동성이나 Baumeister의 이론이 시사하는 인지적 몰락 상태에 수반된 억제능력의 결여를 측정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항 자체가 상당히

이질적이므로 앞으로는 충동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진 후에, 이 척도가 "충동성"이라는 구성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측정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자살 시도 여부를 질문한 두 문항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학생들을 자살 시도 집단으로 분류하여 자살 생각과 충동성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자살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자살 시도를 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replication study)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박광배·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 생각.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20-32.
- 신민섭·박 광배·오경자·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1-1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sarnow, J., Carlson, G., & Gut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 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oebner Medical Devision, Hapner & Row.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rent, D. A. (1987). Correlates of medical lethality of suicide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6, 87-89.
- Brent, D. A., & Kolko, D. J. (1990).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e. In Brumenthal, S. J., & Kupfer, D. J. (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Brent, D. A., Kalas, R., Edelbrock, C., et al. (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66-673.
- Calson, G. A., & Cantwell, D. P. (1982). Suicidal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361-368.
- Camus, A. (1955). *THE Myth of Sisyphus*. New York : Knopf.
- Cole, D. A. (1988). Hopelessness, social desirability, depression, & parasuicide in two college 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31-136.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Dickman, S. J.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95-102.
- Dickman, S. J. & Meyer, D. E. (1988). impulsivity and speed- accuracy trade-offs i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74-290.
- Emery, G. D., Steer, R. A., & Beck, A. T. (1981).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ntent among heroin add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16, 425-429.
- Fremouw, W. J., De Perczel, M., & Ellis, T. E. (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New York : Pergamon Press.
- Hawton, K., Osborn, M., O'Grady, J., et al. (1982). Classification of adolescents who take overdos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0, 124-131.
- Jacobs, J. (1971). *Adolescent suicide*. New York : Wiley.
- Klerman, G. (1987). Clinical epidemiology of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8, 33-38.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 aged children. *Acto*

- Paedopsychiatria*, 46, 305-315.
- Linehan, M., Goodstein, J., Nielsen, & Chiles, J.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276-286.
- Linehan, M. M., & Nielsen, S. L., (1981). Assessment of suicide ideation and parasuicide: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73-775.
- Minkoff, K., Bergman, E., Beck, A. T., & Beck, R. (197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ttemp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0, 455-459.
- Peck, M. L. (1985). Crisis intervention treatment with chronically and acutely suicidal adolescents. In M. L. Peck, N. L. Farberow, & R. E. Litman (Eds.), *Youth suicide* (pp. 112-122). New York: Springer.
- Petrie, K., & Chamberlain, K. (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 Robbins, D. R., & Alessi, N. E. (1985).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588-592.
- Sarason, I. G., & Sarason, B. G. (1984). *Abnormal psychology, the problem of maladaptive behavior*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imons, A. D. & Murphy, G. E., Levine, J. L., & Wetzel, R. D. (1986). Cognitive therapy and pharmacotherapy for depression: Sustained improvement after one yea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43-48.
- Wetzel, R. D., Margulies, T., Davis, R., & Karum, E. (1980).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1, 159-160.
- Weissman, A. M., Beck, A. T., & Kovacs, M. (1979). Drug abuse,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4, 451-464.
-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Min Sup Shin

Kwang B. Park

Kyung Ja Oh

Yonsei University

Choongbuk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impulsivity was not significant in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mostly depression was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while suicidal ideation interact with impulsivity to have an effect on suicidal attempt. The more adolescents have suicidal ideations, the more suicidal attempts increase even after impulsivity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motional support and impulse control training for depressed adolescents to prevent suicidal behavior.

부 록

다음은 귀하의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에 동의하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를 하십시오.

1. 나는 무슨 옷을 입을까, 혹은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등과 같은 간단한 결정도 성급히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2. 나는 생각없이 머리에 떠오르는데로 말해버리는 적이 자주 있다. 예() 아니오()
3. 나는 재빠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예측못했던 기회를 포착하는데 소질이 있다. 예() 아니오()
4. 나는 문제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길 좋아한다. 예() 아니오()
5. 대부분의 경우, 나는 생각하는 것을 즉시 말로 옮길 수 있다. 예() 아니오()
6. 나는 지킬 수 있는 지를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아니오()
7.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해야할 때는 불편함을 느낀다. 예() 아니오()
8. 나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9. 나는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는 아주 신속한 대화를 좋아한다. 예() 아니오()
10. 나는 상황을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고 마음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 아니오()
11. 나는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2. 때때로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버린다. 예() 아니오()
13. 나는 순간적인 결정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택하면,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아니오()
14. 나는 때때로 생각없이 행동함으로써 곤란을 겪는다. 예() 아니오()
15. 나는 다음 행동을 신속히 결정해야하는 운동이나 놀이를 좋아한다. 예() 아니오()
16. 사전에 미리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획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예() 아니오()
17. 나는 때때로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는 적이 있다. 예() 아니오()
18. 나는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기 전에는 새로운 일을 착수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9. 내가 생각을 빨리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예() 아니오()
20.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심스럽게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다. 예() 아니오()
21. 나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해야하는 일들을 가능하면 피하고자 노력한다. 예() 아니오()
22. 나는 신중한 추론을 잘한다. 예() 아니오()
23. 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 아니오()